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학은 중국의 오랜 전통인 예(禮)라는 ㉠ 규범 안에 인(仁)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다.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情感)에 주목했다. 『예기』에서 언급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의 일반 정감을 가리키는 칠정(七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맹자는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인 양 느낄 수 있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사단(四端)인데,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자는 형이상학적 이론화를 통해 맹자가 제시한 사단을 객관화하고자 했다. ㉢ 선한 정감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맹자의 입장을 벗어나,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했던 것이다. 주자는 세계가 음(陰)과 양(陽)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음양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계속해서 변하지만 ‘변한다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를 리(理)로,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을 기(氣)로 규정하고, ‘리’와 ‘기’가 합쳐져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리’는 ‘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며, ‘기’는 ‘리’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 역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리’, 즉 사람의 본성인 성(性)과 그것을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가 합하여 정(情)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자는 맹자의 성선론(性善論)에 근거하여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사람에게 ‘인’과 의(義)와 같은 선한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단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 된다.

하지만 선한 정감인 사단과 일반 정감인 칠정의 관계는 주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 이황은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으로 정리했다. ‘성’은 선하기 때문에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칠정 속에는 선한 정감뿐 아니라 사욕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는 칠정에서 비롯한다고 본 것이다. 이황은 ㉤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단을 ‘리’에, 칠정을 ‘기’에 대응시킨다.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 기대승은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의 영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사단이나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단과 칠정 모두 정감인 이상 ‘리’와 ‘기’의 결합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수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나타났다.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에 대해 사단이 ‘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인 ‘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치중했다.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정함으로써, 칠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즉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황은 ㉦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경(敬)의 자세를 중시했다. ‘리’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승은 원론적인 주자학의 입장에서 능동적 속성은 ‘기’의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만약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별개로 본다면 마음속에 두 종류의 정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단이 선함이고, 칠정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졌다면 마음속에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마음은 ‘리’와 ‘기’의 결합이라는 주자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은 칠정으로 발현되는데 문제는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하여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誠意)를 강조했다. 또한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수양보다는 경전 공부를 통해 성현들의 행동을 익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사단: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해 사양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아는 시비지심의 네 가지 선한 정감.

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국에서 시작된 유학의 학문적 흐름이 조선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변모한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유학의 이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상가들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유학 내에서의 서로 다른 이론적 경향이 학자들 간의 논쟁을 거쳐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절충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하나의 학문이 서로 다른 사상적 갈래로 나뉘게 된 학문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유학이 지닌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계기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조명하고 중국의 사상적 흐름이 조선 성리학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감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다.
- ② 맹자는 타인의 정감을 자신의 정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사단을 구체화하였다.
- ③ 주자는 음양 변화의 이치를 ‘리’로,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을 ‘기’로 정의하고 우주의 모든 것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④ 이황은 사단을 인간의 본성이 그 자체로 발현한 것으로 파악하여 본성이 순수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기대승은 칠정을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된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3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이퀄리브리엄」에서,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사람이라면 타고나는 슬픔이나 우울함, 분노 등과 같은 감정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리브리아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상 사회로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의 감정을 제거했다. 또한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예술 작품을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없애 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은 사랑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①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전쟁의 원인을 감정에서 찾은 것은, 사람의 행동이 정감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유학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
- ②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감정을 사람이라면 타고나는 것이라고 본 것은, 칠정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본 『예기』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
- ③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슬픔이나 우울함, 분노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칠정 중 악한 감정을 경계한 이황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
- ④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린 것은,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고 본 기대승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
- ⑤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의 감정을 제거한 것은, 도덕적인 행동은 정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맹자의 관점과 배치되는군.

4. ㉠,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같은 사단(四端) 또한 정감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딱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옳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정감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나) 사단(四端)은 리(理)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기쁨[喜]·노여움[怒]·사랑[愛]·미움[惡]·욕심[欲]을 보면 오히려 인(仁)이나 의(義)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 ① ㉠: (가)에서 사단 또한 정감이라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리’의 발현인 사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 ② ㉡: (가)에서 사단이 상황에 맞지 않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단이 ‘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때의 정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하고 칠정에 머무른 것이다.
- ③ ㉠: (나)에서 사단은 ‘리’가, 칠정은 ‘기’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 것은 사단과 칠정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④ ㉡: (나)에서 기쁨·노여움·사랑 등의 정감이 ‘성’에 해당하는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은 정감이 ‘리’와 ‘기’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 ⑤ ㉡: (나)에서 기쁨·사랑뿐 아니라 노여움·미움·욕심까지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은 마음속에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재적 규칙을 인(仁)이라는 내재적 마음과 통합함으로써
- ② ㉡: 사람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 ③ ㉢: 보편적 객관화 없이 사람에게만 선한 정감이 주어지고 본
- ④ ㉣: 사단과 칠정은 각각이 비롯된 근거를 서로 달리하므로
- ⑤ ㉤: 사적 욕망이 개입되지 않도록 선한 이치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행정 법규는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 B를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을 지닌 ‘요건-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특정의 사실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B를 해야 한다’의 경우처럼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행정 행위를 기속 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인 지방 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거부자의 운전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① 지므로 이때의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 행위이다. 반면 ‘B를 할 수 있다’처럼 법규가 가능 규정 형식으로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행정 행위를 재량 행위라고 한다. 도로 교통법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그 집행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 행위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속 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행정 행위는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재량 행위의 경우 입법자가 가능 규정을 통해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을 벗어나 행사된 것인지만 심사할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를 택하였거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 등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 행위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 어떤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에 따라 행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나)

법률 요건에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위험 등과 같은 법 개념은 그 해석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의미가 일의적이 아니라 다의적이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법 개념을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한다. 법 규정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판단 여지설은 법률 요건에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하나의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진다. 이 설은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고 정의한다. 이 입

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 관계의 확인,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확인된 사실 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포섭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사실 관계의 확인과 법 개념의 해석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확인된 사실 관계가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본다. 즉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 심사가 곤란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판단 수권설은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불확정 법 개념은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시대의 사회·경제·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입법자인 의회가 행정청에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 법 개념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수권에 근거하고 있는 판단 수권이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여부는 행정의 탄력성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 등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수권(授權):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행정 법규의 규정 형식에 따른 법률 요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행정 행위의 종류에 따른 사법 심사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행정 법규의 특수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특정한 법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법 개념의 해석에 대한 사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행정 법규에 특정한 법 개념이 사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당 법 개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법원의 통제가 제한되는 행정의 영역을 소개하고 현행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속 행위뿐 아니라 재량 행위도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
- ② 행정 법규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지방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 행위이다.
- ④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지방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 ⑤ 재량 행위와 달리 기속 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행정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복수의 행정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8.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속 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만, 재량 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법적 권한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 ② 구체적 사실 관계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경우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③ 입법자가 행정 법규의 효과 부분에서 가능 규정 형식을 사용한 결과, 재량 행위에 대한 법규는 '요건-효과'의 조건문 형식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 ④ 기속 행위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대해 법원의 우위가 인정되지만, 재량 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원과 동등한 재량권을 지니기 때문이다.
- ⑤ 기속 행위는 행정청이 부여받은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재량 행위는 행정청이 부여받은 의무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는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9. [판단 여지]의 인정 여부에 대한 ㉠, ㉡의 입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행정 영역에 따라 행정청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행정 영역에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 ② ㉠은 확인된 사실 관계가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 ③ ㉡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특정한 법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아닌 입법자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은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법률 집행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행정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가 행정청에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10.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행정 법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의료법 제53조 제1항의 '국민건강', '의료기술의 발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은 재량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53조 제1항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의료기술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러한 판단은 존중해야 하므로 사법 심사가 불가하다.
- ④ 의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여부 판단은 행정청이 지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의료기술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시술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면, 재량권이 부여된 목적을 벗어나 행사된 것인지에 대해서만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11. 문맥상 ㉠과 바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과(賦課)하므로
- ② 부담(負擔)하므로
- ③ 부여(附與)하므로
- ④ 부응(副應)하므로
- ⑤ 부합(符合)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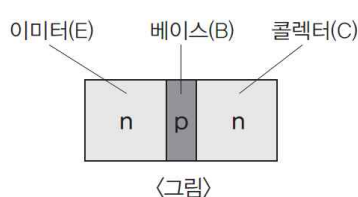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하란 전기적 성질의 근원이 되는 물리량으로, 원자핵의 양성자는 양(+)¹의 전하를,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음(-)²의 전하를 갖고 있다. 고체의 경우 좁은 영역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영역을 에너지띠라고 한다. 에너지띠는 원자가띠와 전도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상태가 더 높은 전도띠로 이동하여 자유 전자가 된다. 자유 전자는 특정한 원자핵에 붙들려 있지 않아 원자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때 원자가띠에서 전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양전하를 띤 정공이라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 정공 자체는 입자는 아니지만 주변 전자들의 위치가 바뀌면 정공도 이리저리 위치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정공 또한 자유 전자와 마찬가지로 전하를 운반하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금속 같은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원자가띠의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 자유 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체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 즉 띠 간격이 비교적 커서 원자가띠의 전자들이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없으므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한편 띠 간격이 작은 반도체의 경우,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원자가띠를 가득 채우고 있어 전류가 흐르지 못하지만, 어떤 조작을 통하여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하도록 하거나 원자가띠의 전자를 일부 부족하게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순도가 높은 반도체인 진성 반도체에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외인성 반도체**라고 한다. 외인성 반도체는 첨가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구분된다. n형 반도체의 경우 일부 전자가 전도띠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전하를 띤 자유 전자가 전하를 옮길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에 전자를 추가 공급하는 불순물을 공여체라고 한다. 반면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을 수용체라고 한다. 진성 반도체에 수용체를 첨가하면 원자가띠의 전자가 일부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는 정공이 생기게 되어 양전하를 옮길 수 있게 된다.

트랜지스터는 3개의 반도체가 접합된 전자 부품으로, 반도체의 접합 순서에 따라 n형-p형-n형 순서로 접합된 npn형 트랜지스터와 p형-n형-p형 순서로 접합된 pnp형 트랜지스터로 **㉠ 나뉜다**. npn형 트랜지스터의 경우 가운데 p형 반도체는 양쪽에 접합된 n형 반도체에 비해 폭이 좁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세 전극은 각각 2개의 n형과 1개의 p형 반도체에 접속되어 있다. 이때 가운데 p형 반도체를 베이스(B), 양쪽의 n형 반도체를 각각 이미터(E), 콜렉터(C)라고 한다.



<그림>은 npn형 트랜지스터를 나타낸 것이다. npn형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먼저 B와 C 사이에 역방향의 전압, 즉 역전압

을 걸어 준다. 역전압이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도록 가해진 전압을 말하는데, C에 양극, B에 음극을 연결하면 C의 전자들은 양극으로 몰리고, B의 정공들은 음극으로 몰려 B-C 사이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B에 양극, E에 음극을 연결하여 B-E 사이에 작은 크기의 순방향 전압을 걸어 준다. 이렇게 순전압이 걸리면 E의 전자들은 B에 접속된 양극으로 움직이고, B의 정공들은 E에 접속된 음극으로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B의 폭이 좁기 때문에 E에서 B로 움직이던 전자들은 손쉽게 B를 지나 C로 건너간다. B-C 사이에는 이미 역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C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게 되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C에서 E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또한 E와 B 사이에 적은 양의 전자가 이동하더라도 E의 많은 전자가 B를 건너 C로 지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B-E 사이의 전류보다 더 많은 양의 전류가 C-E 사이에 흐르게 된다. 이때 **㉡ B-E 사이에 흐르는 약한 전류로 C-E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증폭 효과이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물질을 활용한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물질이 발견된 과정을 제시하여 해당 물질과 기존의 물질 사이에 공유되는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물질들을 결합시켜 개발된 기술의 한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물질이 지닌 물리량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물리량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물질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술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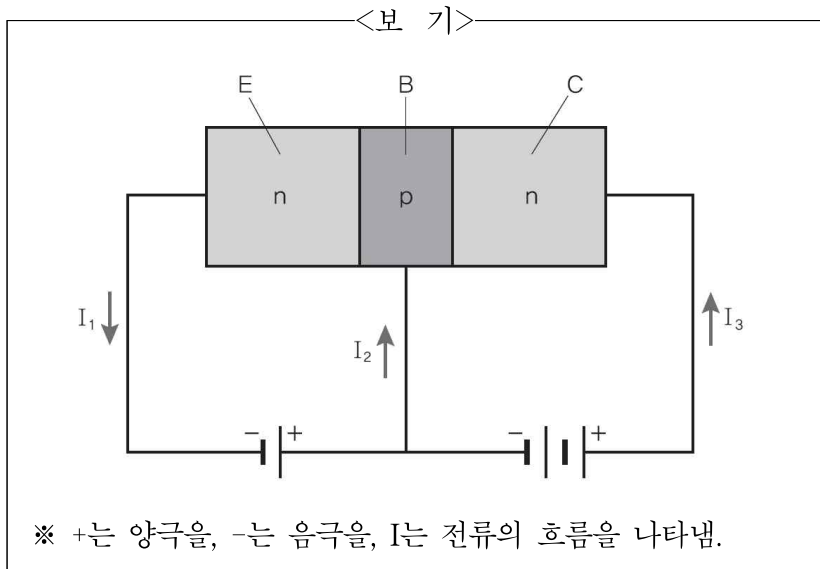
13.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물체 안에 존재하는 자유 전자가 전하를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이 첨가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도체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반면 반도체에는 전류가 거의 흐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물질의 띠 간격이 클수록 이를 활용한 트랜지스터의 증폭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npn형 트랜지스터에서 가운데 p형 반도체의 폭을 양쪽에 접합되는 n형 반도체보다 좁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14. [외인성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첨가되는 수용체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내에 정공도 늘어나게 된다.
- ② 첨가된 불순물이 공여체인지 수용체인지에 따라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구분된다.
- ③ 원자가띠에 속박된 전자가 일부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 주면 전자가 빠진 자리가 전하를 운반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
- ④ 공여체로 인해 반도체의 전도띠에 자유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자유 전자의 이동에 따라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 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경우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전류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회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순전압에 의해 E에서 B로 이동한 전자가 역전압에 의해 C로 이동한다.
- ② B의 정공이 E 쪽으로, E의 전자가 B 쪽으로 이동하면 I₂가 흐르게 된다.
- ③ I₂가 흐르지 않으면 I₃도 흐르지 않는다.
- ④ I₁의 크기는 I₂와 I₃의 크기를 합한 것과 같다.
- ⑤ I₂가 커지면 이에 대응해 I₃이 작아진다.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에 쌓인 자유 전자가 C로 넘어가 더 많은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E에서 B로 자유 전자들이 이동함에 따라 B의 정공들이 C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③ E에 음극이 연결되어 n형 반도체의 자유 전자들이 E 쪽으로 이동하면서 B의 정공들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 ④ B와 C 사이에 걸린 역전압이 E와 B 사이에 걸린 순전압에 의해 증폭되어 B와 C 사이에 더욱 강한 역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⑤ B와 C 사이에 걸린 역전압이 E와 B 사이에 걸린 순전압보다 높아서 순전압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역전압에 의한 전류의 흐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17.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20이 5로 나뉘면 4가 된다.
- ② 물줄기가 눈앞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다.
- ③ 수익금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
- ④ 피자가 세 조각으로 나뉘면 한 사람이 못 먹게 된다.
- ⑤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나는 그와 다른 편이 되었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옹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림어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짓던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 함추름: 함초름. 젓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 석근: 성긴. 듽성듬성한.

(나)

세상(世上)의 버린 몸이 견무(畎畝)*의 늘거 가니
 밧격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슨 일고
 이 중(中)의 우국(憂國) 성심(誠心)은 연풍(年豐)을 원(願)하
 노라

<제1수, 원풍(願豐)>

㉔ 농인(農人)이 와 이로디 봄 왔너 바티 가세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짜보 내너
 두어라 내 집 부디 흐랴 늡 하니 더욱 도타

<제2수, 춘(春)>

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
 밧고랑 미자 하니 썸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닙립신고(粒粒辛苦)* 어너 분이 알으실고

<제3수, 하(夏)>

ㄱ을희 곡석 보니 뎡흙도 뎡흙세고
 내 힘의 날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기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슨 흐리오

<제4수, 추(秋)>

새배 밧 나자나서 백설(百舌)이 소리흐다
 일거라 아히들야 밧 보러 가자스라
 밤 스이 ㉕ 이슬 귀운에 언마나 기런느고 흐노라

<제6수, 신(晨)>

서산(西山)애 히 지고 풀 곱테 이슬 난다
 ㉖ 호뵤를 들너 메고 돌 디여 가자스라
 이 중(中)의 즐거운 뜻을 닙너 무슨 흐리오

<제8수, 석(夕)>

- 이휘일, 「저곡전가팔곡」 -

* 견무: 시골.
 * 닙립신고: 낱알 하나하나마다 배어 있는 농부의 수고.
 * 천사만중: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1연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2연과 5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제4수>, <제8수>에서는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2연과 (나)의 <제2수>에서는 모두 구체적 소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농촌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의 3연과 (나)의 <제6수>에서는 모두 의인화를 통해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다.
- ⑤ (가)의 4연과 (나)의 <제3수>에서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19.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이웃과의 교류를 피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이웃과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고, (나)의 화자는 대상을 지칭하여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권유하고 있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심리학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태도 또는 행동이 지향하는 특성을 장소 애착성이라고 합니다. (가)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장소 애착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장소 애착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평화롭고 한가한 풍경과 정겹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㉑

학생 2: 밝음과 어둠을 대비하여 현재와는 다른 과거 고향의 즐겁고 긍정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㉒

학생 3: 화자가 꿈 많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늘빛', '풀섶'과 관련한 색채어를 활용하여 각각의 색채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㉓

학생 4: 시상을 전개할 때 후렴구를 제외한 각 연의 마지막 행을 모두 고향을 가리키는 동일한 명사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㉔

학생 5: 시상을 전개할 때 후렴구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㉕

- ① ㉑, ㉒, ㉓
- ② ㉑, ㉒, ㉔
- ③ ㉑, ㉒, ㉕
- ④ ㉒, ㉓, ㉔
- ⑤ ㉒, ㉓, ㉕

21.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이휘일이 45세 때인 1664년에 지은 연시조의 일부로, 그가 경험한 농촌의 정경과 농민의 노고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휘일은 성리학을 연구해 명성을 얻었는데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을 농촌에서 보냈다. 이 작품은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는 부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일을 제시하는 부분, 농촌의 일과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세상의 브린 몸'은 벼슬을 하지 않는 화자의 처지를, '연풍을 원하노라'는 자기가 사는 농촌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내 집 부디 흐라 늙 하니 더욱 도타'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농사일을 경시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쓴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밭고랑 미자 하니 썸 흘너 싸희 듯네'는 더운 여름에 농사일을 하는 농민의 노고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내 힘의 닐운 거시 머저도 마시로다'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여 수확을 얻는 농사일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새배 빗 나자나셔'는 농촌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서산애 히 지고'는 농촌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언젠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화합의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② ㉡는 화자가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여기는, ㉡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는 화자가 내적 갈등에 빠지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자신이 처한 공간에 대해 인식을 바꾸도록 영향을 주는 소재이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재의 상태 변화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기 성찰을 통해 잘못을 고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③ ㉢: 넉넉하지 못하고 고된 삶을 사는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농부가 농사일을 함께 하자고 화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 ⑤ ㉣: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그의 목소리는 진폭이 짧게 차단된다. 그는 간혀 있음을 의식한다. 벽 사이의 눈을 의식한다. 그는 사납게 소파에 누워, 시선에 닿는 가구들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모든 가구들이 비 온 후 한결 밝아 오는 나뭇잎처럼 밝은 색조를 띠고 빛나기 시작한다. 그는 스푼을 집요하게 젓는다. 설탕물은 이미 당분을 포함하고 뜨겁게 달아 있으나 설탕은 포화 상태를 넘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스푼을 젓는다. 갑자기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손잡이가 긴 스푼이 어느 스푼이 아님을 느낀다.

[A] 그러자 스푼이 그의 의식의 녹을 벗기고, 눈에 보이는 상태 밖에서 수면을 향해 비상하는, 비늘 번뜩이는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힘을 다해 스푼을 쥔다. 그러자 스푼은 산 생선을 만질 때 느껴지는 뿌듯한 생명감과 안간힘의 요동으로 충만된다. 그리고 손아귀에 쥐어진 스푼은 손가락 사이를 민첩하게 빠져나간다. 그는 잠시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린 채 스푼이 허공을 날면서 중력 없이 둥둥 떠서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 방 안의 물건을 자세히 보리라고 다짐하고는 눈을 부릅뜬다. 그러자 그의 의식이 닿는 물건들마다 일제히 흔들거리면서 흥을 돋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거실에 스위치를 넣으려고 걷는다. 그는 스위치를 넣는다. 형광등의 꼬마전구가 번쩍번쩍거리며 몇 번씩 반추한다. 그러다가 불쑥 방 안이 밝아 온다.

그는 스푼이 담수어처럼 얄전하게 손아귀 속에 쥐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온 방 안의 물건들을, 조금 전까지 흔들리고 튀어 오르고 덜컥이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한다.

물건들은 놀랍게도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제자리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비애를 느낀다. 무사무사(無事無事)의 안이 속에서 그러나 비웃으며 물건들은 정좌해 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스위치를 내린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단 설탕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방 안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모의를 논의한다. 친구여, 우리 같이 얘기 합시다. 방 모퉁이 직각의 앵글 속에서 한 놈이 용감하게 말을 걸어온다. 벽면을 기는 다족류 벌레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옷장의 거울과 화장대의 거울이 투명한 교미를 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는 어둠 속에 눈을 부릅뜬다. 벽이 출렁거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중략)

그는 부엌을 답사하였고 그럴 때엔 욕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거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활차(溜車)처럼 뛰고 또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무런 낚시도 발견해 낼 수 없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만스럽게 걸어가서 스위치를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남은 설탕물을 찹끔찹끔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료처럼 붙었던 어둠이 차곡차곡 잠겨서 덤벼들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더니 마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다. 말린 휴지 조각이 베포처럼 늘어져 허공을 난다. 닫힌 서랍 속에서 내의가 펄펄 뛰고 있다. 책상을 받친 네 개의 다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럭거리며 쟁그렁거리면서 모반을 시작한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난다. 옷장 속의 옷들이 펄럭이면서 춤을 춘다. 책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린다.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였다.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 속에서 성냥개비가 중얼거린다.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춘다. 내의가 들여다보인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꿈쩍거리다가는 천천히 물러서곤 하였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도립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재떨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소켓 부분에선 노래가 흘러나온다. 낙숫물이 신기해서 신을 받쳐 들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환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 최인호, 「타인의 방」 -

2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판단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지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인물과 인물이 주목하는 대상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관점이 다른 두 서술자의 시선을 제시하여 한 사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일상 체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물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그’는 방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 ② 아무 일 없었던 듯 놓여 있는 물건들을 발견한 ‘그’는 물건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 ③ 방 안 구석구석에서 나는 소리를 의식한 ‘그’는 소리를 내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 ④ 무생물의 속성을 떠올리며 자신의 놀란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그’는 안도감을 갖는다.
- ⑤ 물건의 행위를 관찰한 ‘그’는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한다.

26. 윗글의 ‘스위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위치가 내려져 있을 때, ‘그’는 사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한다.
- ② 스위치의 상태 변화에 따라 ‘그’는 사물들의 활동 양상을 다르게 인식한다.
- ③ 스위치를 조작하는 데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④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그’는 사물들의 세계에 편입되려는 자신의 의지를 발견한다.
- ⑤ 스위치는 ‘그’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변화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환상이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가리킨다. 「타인의 방」에서 환상은 상식에 기반한 체험을 넘어서는 이질적인 감각과 생경한 풍경을 제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명암의 대비, 사물의 가변적 양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소멸 등이 빚어내는 상황에 처한 인물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낸 사물들 사이의 위계질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유토피아의 상상 세계와 사물이 주도하는 눈앞의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방」은 이와 같은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점차 사물화되어 가는 신체를 ‘부활’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의 실존 문제를 상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① 어둠 속에서 물고기처럼 생명력을 드러내다가 밝은 방 안에서 담수어처럼 얽전하게 있는 스펀의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사물이 보여 주는 가변적 양태를 제시하고 있군.
- ② 밝은 분위기에서와 대비되는 어둠 속에서의 사물들의 움직임

을 서술함으로써, 상식을 넘어서는 장치로서 환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방 안의 사물들이 ‘그’를 무방비 상태의 대상으로 파악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사물과 인간 사이의 위계질서가 변화된 상황을 생경한 풍경으로 나타내고 있군.
- ④ 사물들이 보여 주는 이질적 감각으로 인해 황홀해하는 ‘그’의 모습을 공범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년기의 상상 세계와 현실을 구별하려는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군.
- ⑤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 가는 것을 ‘그’가 부활하는 것처럼 나타내어 무생물과 생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시대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한다. 이후 장원 급제를 한 지경에게 희안군이 청혼을 하지만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안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한다.

희안군이 ㉠ 계하(階下)*에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다.
 “비록 성례는 하였으나 합궁(合宮) 전이오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오나, 왕명을 순순히 좇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오니, 제가 거역하지는 못하오리다.”
 임금이 화난 얼굴로 가로되,
 “너를 사랑하여 부마(駙馬)로 정하거늘,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대느뇨.”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가로되,
 “어찌 감히 최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양하리이까.”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네 불과 소년 장원하여 환세(幻世)하고자 하여 옹주인 줄을 꺼림이라. 가장 범람하도다.”
 지경이 머리를 조아려 가로되,
 “신이 어찌 또 감히 속여서 아뢰리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옵거든 어찌 꺼리오며, 신의 나이 어리오되 조정 신하들이 모였사오니 불러 물으소서.”
 임금이 변색하여 가로되,
 “합궁 전은 남이라.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成宗) 때에 경애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밤 예를 치르지 못하여서 죽으니 파혼하고 부마 위를 거두시니, 왕가에도 불행하던 바이라. 네 위엄이 성묘에 더하냐.”
 지경이 가로되,
 “신은 그와 다르나이다. 그때 공주 돌아가시고, 신은 최씨 살아 있사오니, 신이 부마 되었으면 최씨 청춘 과부 되오리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인륜을 차마 어찌 끊으시리이까.”
 희안군이 가로되,

“빙채(聘采)*를 거두고 최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요.”
 지경이 노하여 가로되,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혼하다가 최가에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일로 혐의를 이어 전하께 천거하여 전하에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하리도다.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고이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불명(不明)이로소이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희안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서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버를 죄 주리라.”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전하 중흥(中興) 19년에 일월 같사온 성덕이 심산궁곡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무거하신 정사가 이러하시니 죽어도 항복지 아니하리이다.”
 임금이 더욱 노하사 가로되,
 “내 윤지경을 못 제어하리요. 군부를 욕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고, 또 윤현을 가두고 길레날을 받아 놓고, 최홍일은 빙채를 도로 주라.”
 하시니, 윤지경 부자가 옥에 갇히며 원통해하며 말하되,
 “신의 자식이 망녕되어 상의를 불복하와 범죄 이렇듯 하오니 부자를 함께 죽이셔도 마땅하옵거니와, 최홍일의 딸은 지경의 아내요 신의 며느리오니, 전하의 성덕으로써 신자의 인륜을 잇게 하시면, 최 씨 비록 미약한 여자이오나 천은을 감축하와 화산(華山)의 풀을 맺어 성덕을 갚사울 것이요, 신의 부자 충성을 다할 것이니, 복원 성상은 익히 헤아리옵소서. 고문대가(高門大家)에 재량*을 간택하오셔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금이 답하여 가로되,
 “내 아는 바이어늘, 경의 부자가 한결같이 기망하느뇨. 인간 대사에 연고가 있어 퇴혼(退婚)하는 일이 왕왕 있나니, 최녀를 재량을 택하여 맡기게 하고 지경의 방자함을 가르치라.”
 하니, 윤 공이 하릴없어 하더라.
 양사(兩司)* 함께 글을 올려 가로되,
 “신등이 듣사오니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위로 부르나이다. 혼인이란 것은 왕법의 위엄이오나, 양가의 상의할 것이어늘, 윤현의 부자를 가두시며 퇴채(退采)하라 하신 하교(下教) 옳지 아니 하나이다.”
 임금이 양사를 파직하시니, 홍문관이 이어서 가로되,
 “혼인은 길사이오니 신량과 사장을 가두심이 크게 옳지 아니 하여이다.”
 이에 임금이 놓으라 하시고, 하교하사 길일을 정하라 하시니 수십 일이 격하였는지라, 지경이 몹시 분하며 원망하나 하릴없어 하더라.
 임금이 가로되,
 “지경이 죄 중하나 길일 전에 관면(冠冕)*이 있으리라.”
 하시고 응교(應教)*를 내리시니, 지경이 하릴없어 입공(立功)하더라.
 하루는 최 씨의 집에 이르니 최 공 부부 서로 불새, 부인은

눈물이 비와 같이 흐르고, 공도 역시 슬퍼 탄식하여 가로되,
 “상명이 퇴채하라 하시니 여아는 규방에 늪기를 정하고, 또한
 내 어른 재상으로 군명을 어기리요.”
 생이 애연하여 가로되,
 “그러면 서로 얼굴이나 보사이다.”
 공이 가로되,
 “불가하나 네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라.”
 하며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들어 ㉠ 전당(前堂)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부끄러움을 띠어 사색이 태연하여 아는 듯 모
 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 같아 반가운 정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을 대하매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하더라.
 돌아가기를 잊고 앉았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십분 타이르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폐하더니, 길일이 다다라 행례할새 옹주의 고운 얼굴이
 전혀 없고 포독(暴毒)하고 인자함이 없음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끄르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입궐하여 문안하니, 임금이 웃으며 가로되,
 “네 죄 크게 통한하더니 이제 자식이 되니 가장 어여쁘다.”
 하시고 즉시 부마의 관교(官敎)*를 주시니, 웃고 꿇어 받자와
 계하에서 사은(謝恩)하고, 귀인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포독하니,
 더욱 모골이 송연하더라.
 박 귀인이 부마의 미려한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꺼워하더라.
 부마가 ㉡ 집에 돌아와 대문에 들며 하인을 명하여 가마를
 산산이 깨치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관교를 내어
 땅에 던지니, 윤 공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이 어인 일이뇨. 임금이 주신 교지(敎旨)를 업수이 여김이
 어찌 이렇듯 불공한가.”
 하고, 또 타이르더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 계하: 층계의 아래.
- * 빙채: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붓집에 보내는 예물.
- * 재량: 재주 있는 젊은 남자.
- * 양사: 조선 시대의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함.
- * 관면: 벼슬하는 것을 일컫던 말.
- * 응교: 홍문관에 속하여 학문 연구와 교명(敎命) 제찬(制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사품 벼슬.
- * 관교: 조선 시대에 임금이 사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사령 (=교지(敎旨)).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양사와 홍문관의 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② 윤현은 다른 가문의 남성을 부마로 정할 것을 임금에게 청하고 있다.
- ③ 윤지경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옹주와 억지로 혼인을 하고 있다.
- ④ 임금은 희안군을 대하는 윤지경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⑤ 최홍일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최녀와 윤지경의 만남을 잠시 용인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윤지경전」은 임금이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제하는 능혼(勒婚) 모티프를 서사적으로 전개한 애정 소설이다.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 윤지경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감정인 애정을 근거로 최녀와의 혼인을 원하고 있다. 반면 임금은 사적 영역에까지 충의 가치를 강제하며 연성 옹주와 윤지경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혼인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이에 대항해 나간다는 점이 능혼 모티프를 활용한 다른 애정 소설 작품들에 비해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① 희안군이 ‘왕명을 순순히 좇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라고 말한 것은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윤지경이 임금에게 ‘죽어도 항복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은 임금이 혼인을 강제하려 한 것에 대한 윤지경의 대응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임금이 ‘길레날’을 받고 최홍일에게 ‘빙채를 도로 주’라고 하는 것은 능혼 모티프가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임금의 지시에 따라 ‘윤지경 부자가 옥에 갇히’는 것은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고통을 받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능혼 모티프가 나타난 다른 애정 소설에 비해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양사가 ‘혼인이란 것은 왕법의 위엄이오나, 양가의 상의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충의 가치가 인간 본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겠군.

30. [A]에 드러난 ‘윤지경’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지어 희안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임금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신에 대한 희안군의 비판을 수용하며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희안군이 윤지경의 주장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윤지경이 최녀와의 합궁 이후에도 머물렀던 공간이다.
- ③ ㉡은 윤지경이 최녀와의 혼인을 단념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옹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윤지경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은 임금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윤현의 인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S# 18. 빅토리아호

엎혀 있는 막순 돌아보는 덕수.

어린 덕수: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이다!
놀러 가는 게 아이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라!!

막순 손 꼭 잡고 그물 사다리 오르는 덕수. 막순의 등을 잡아끄는 누군가의 손. 덕수가 잡고 있던 막순의 소매춤이 찢어진다. 덕수 등에서 떨어지는 막순. 찢어진 막순 소매춤. 막순의 소매춤을 보고 놀라 난간으로 가는 덕수.

어린 덕수: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막순아!!!

난간으로 간 덕수, 막순을 찾는다.

어린 덕수: 막순아!!

덕수에게 가는 덕수 부.

어린 덕수(V.O): 막순아!! 막순아!!

덕수 부: 승규 좀 받으소. 덕수야, 덕수야!!

빅토리아호 밀 전마선.

어린 덕수(V.O): 막순아!!

난간 앞 막순 부르짖는 덕수에게 온 덕수 부.

어린 덕수: 막순아!! 막순아!!

덕수 부: 니 어째 기니.

어린 덕수: 내 막순이 잃어버렸습다.

덕수 부: 뭐시기.

어린 덕수: 내 가서 막순이 텔쿠 오겠습다.

덕수 부: 니는 퍼뜩 엄마한테 가라. 막순이 내 찾을게.

어린 덕수: 아버지, 아버지. 내도 같이 가겠습다!

덕수를 붙잡고 밑을 내려다보는 덕수 부. 덕수를 안아 올려 갑판 위에 세운 덕수 부. 겹옷을 벗어 덕수에게 입히는 덕수 부.

덕수 부: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믄 장남인 니가 가장인 것 알제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젤 우선이다. 알았제야!
시방부터 니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어……?

눈물 훔치는 덕수. 우는 덕수 꼭 껴안는 덕수 부. 덕수를 두고 난간으로 가는 덕수 부.

어린 덕수: 아버지!!

난간 내려가는 덕수 부.

[중간 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중 피란길에 올랐던 덕수 가족은 피란 중 잃어버린 막순을 찾으려던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고, 남은 가족끼리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된다. 가족을 잘 돌보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잊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갖은 일을 하던 덕수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던 중 전쟁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

(나)

S# 91. 간이 선착장

직원 1: 우리들하고 접촉해서 베트남들 들어오면 다 죽을 거랍니다.

베트남 할머니(V.O): Please take the children at least…….(아이들만이라도 데려가 달라…….)

아이들 앞으로 세우는 베트남 할머니.

직원 1: 자기들이 안 된다면 아이들만이라도 같이 데려가 달랍니다.

베트남 남매를 바라보는 덕수.

직원 2: 안 됩니다. 우리 탈 자리도 없습니다.

[점프]

배에서 짐 내리는 덕수와 대한상사 직원들.

덕수: 야, 뭐하노 니는, 같이 안 도와주고.

달구: 알았다. 줌 가 있어라. 아, 갈게.

베트남 여자: Cám ơn.(감사합니다.)

달구: 아, 예.

[점프]

배에 오르는 월남인들.

덕수: 천천히, 천천히…….

배 앞머리의 월남인들. 배에 오르려는 월남 남자아이.

덕수: 이리 온나. 으쌰, 이리 와.

덕수 앞에 온 월남 여자아이.

덕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여 온나. 괜찮다.

웃는 월남 여자아이.

덕수: 그래, 그래, 그래.

총 맞는 월남인. 강으로 떨어지는 월남 여자아이. 몰려오는 베트남들. 선착장 향해 총 쏘는 베트남들. 선착장 다리 밑 해병대원들.

선착장 다리 위 교전 중인 해병대원들.

배 위 고개 드는 덕수. 물에 빠진 월남 여자아이.

월남 여자아이: Anh trai!(오빠!)

배 위 월남 남자아이. 허우적대는 월남 여자아이.

월남 여자아이: Anh trai!(오빠!)

동생 부르는 배 위 월남 남자아이.

월남 남자아이: Dao.(여동생 이름)

허우적대는 월남 여자아이. 월남 남자아이 잡아끄는 덕수.

덕수: 야, 야!

월남 남자아이: Dao. Dao.(여동생 이름)

월남 여자아이: Anh trai!(오빠!)

월남 남자아이: Dao. Dao.(여동생 이름)

덕수(V.O): 야!

월남 남자아이에게 기어 다가가는 덕수.

달구: 어디 가노.

배 뒷머리 월남 남자아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월남 여자아이. 월남 남자아이를 앓히는 덕수.

월남 남자아이: Giúp. Giúp. Em gái r i xu ng nước.(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동생이 물에 빠졌어요.)

월남 여자아이(V.O): Anh trai!(오빠!)

허우적대는 월남 여자아이. 월남 여자아이를 보는 덕수. 물에 잠기는 월남 여자아이. 일어서는 덕수. 덕수를 부르는 달구.

달구: 덕수야!

물에 들어가 월남 여자아이에게 가는 덕수.

달구(V.O): 저거 어디 가노.

월남 여자아이에게 다가간 덕수.

월남 여자아이: Anh trai!(오빠!)

월남 남자아이(V.O): Dao. Dao.(여동생 이름)

배 뒷머리로 온 달구.

달구: 가만히 좀 있어라, 임마.

[A]

월남 남자아이: Dao. Dao.(여동생 이름)

월남 여자아이 데리고 헤엄쳐 가는 덕수. 그물 사다리를 내리는 달구. 계속되는 충격에 몸 웅크리는 달구. 월남 여자아이 데리고 헤엄쳐 가는 덕수. 배 뒷머리에 있는 달구.

달구: 빨리, 빨리.

덕수(V.O): 아부터 받아라.

그물 사다리를 오르는 덕수. 아이 받아 올리는 달구. 충격에 물에 다시 빠지는 덕수. 덕수 부르는 달구.

달구: 덕수야!! 빨리!

(다)

S# 115. 덕수의 집 - 작은방

방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는 덕수.

서연(V.O):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노인 덕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막순이도 찾았고예……. 이만하든 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에…….

카메라가 거울로 이동하며 어린 덕수가 보인다.

어린 덕수: (흐느낌)

덕수 부: 울지 말라, 덕수야.

어린 덕수: 아버지…….

덕수 부: 기래……. 내 얼마나 세계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야……. 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니가 잘해 줘서 진짜 고맙다…….

어린 덕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덕수 부: 기래……. 내도 니가 영 보고 싶었다.

작은방 안. 덕수 부의 옷자락을 붙들고 흐느끼는 덕수. 카메라는 거실의 가족들을 지나 국제시장, 부산항 야경을 비춘다.

노인 덕수: (흐느낌)

- 박수진 각본·윤제국 각색, 「국제시장」 -

* V.O(Voice Over): 인물이 화면에 보이지 않고 대사만 들리는 것.

* 점프: 시간의 경과나 과정의 생략을 나타낼 때 사용됨.

3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18에서는 'V.O'를 활용하여 '막순'을 잃어버린 '덕수'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S# 18에서 헤어졌던 '막순'을 S# 115에서는 '덕수'가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S# 18에서 '덕수 부'가 '덕수'에게 준 물건이 S# 115에서 '덕수'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④ S# 91에서는 '점프'를 활용하여 사건 진행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 ⑤ S# 115에서는 S# 18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숨겨진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덕수'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등장시키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야기의 구성인 플롯이 인물의 성격인 캐릭터보다 우선시된다. 그러나 주인공의 캐릭터가 정해져야 정교한 플롯도 만들 수 있기에 플롯과 캐릭터는 상보적 관계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생각에 그치지 보다는 행동에 옮기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수동적인 행동 보다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캐릭터를 가진 인물로 설정된다. 그런데 행동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플롯이 된다. 즉 플롯은 주인공의 일관성 있는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작가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의 행동이 일관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덕수'가 '베트남 할머니'의 부탁으로 인해 다른 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과 연관이 있는 것이겠군.
- ② '빅토리아호'에서의 '어린 덕수'의 경험은 '베트남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덕수'의 행동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겠군.
- ③ 물에 빠진 '베트남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덕수'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로 주인공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이겠군.
- ④ '노인 덕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일관성 있는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제시하는군.
- ⑤ '어린 덕수'가 들었던 '가장'의 역할을 위해 '덕수'가 고생을 하는 경험들은 결국 주인공인 '노인 덕수'가 선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조언을 따르는 인물이 되도록 플롯을 정교하게 구조화한 것이겠군.

34. <보기>는 [A] 부분의 내용을 담은 소설의 일부이다.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덕수는 온 힘을 다해 소녀에게 헤엄쳐 갔다. 강물은 역류였다. 세 발 앞으로 나아가면 한 발 뒤로 밀렸다.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은 없어.’ 덕수 옆으로 가라앉지 않은 해병대원의 시체가 떠내려갔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둘렀다. 소녀는 바로 앞에서 어깨에 피를 흘리며 버둥거렸다.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는 이별의 아픔을 몰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소녀의 팔이 닿았다. 그 팔을 꼭 움켜쥐고 몸을 틀었다. 순류를 따라 어푸어푸 헤엄쳤다. 소녀의 울음, 강물의 최악 소리, 물고기가 튀어 올라오는 소리, 귀를 때리는 총소리, 베트콩들의 기괴한 외침, 배의 프로펠러 돌아가는 부르릉 소리, 찻쫄쫄 판독할 수 없는 무전 소리……. 배는 벌써 10여 미터 앞으로 나아갔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다가가 배의 밑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 물 사다리가 휩 내려졌다.

“덕수야! 이거 잡아라!”

덕수는 소녀를 번쩍 안아 올랐다. 총소리는 여전히 사방에서 들려왔다.

“얼라 먼저 받아라.”

- 김호경, 「국제시장」 -

- ① <보기>는 [A]와 달리 ‘덕수’의 내면과 생각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보기>는 [A]와 달리 ‘덕수’가 이전에 겪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덕수’가 소녀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보기>는 모두 ‘덕수’를 구하기 위한 다른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전쟁 상황과 관련된 소리들을 활용하거나 묘사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전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장에서 앞뒤 맥락이 없을 때 서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을 문장의 필수 성분, 줄여서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국어에서 필수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들 수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으로는 독립어를 들 수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이지만, ㉠ 의존 명사 앞에서는 관형어가 반드시 쓰여야 하고 어떤 부사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에 따라 반드시 쓰여야 한다. 그런데 필수 부사어가 있는 것과는 달리,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앞에서 반드시 쓰인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는 바꿔 말하면 서술어가 문장의 기본적 뼈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 하고, 자릿수에 따라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등으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사 ‘읽다’는 그 동작의 주체와 그 동작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서술어이다. 따라서 ‘읽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이처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문장의 기본적 뼈대를 ‘문형’이라고 하는데, 국어에서 주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서의 문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바)는 필수 성분을 근거로 하므로, 문장에 필수적이지 않은 문장 성분이 들어 있어도 문형은 (가)~(바)로 정리할 수 있다.

- (가) 주어+서술어
- (나) 주어+목적어+서술어
- (다) 주어+보어+서술어
- (라) 주어+필수 부사어+서술어
- (마)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서술어
- (바) 주어+필수 부사어+필수 부사어+서술어

그런데 서술어로 쓰이는 단어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경우보다 다의어인 경우가 더 많다. 서술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문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문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종종 ㉡ 서술어가 다의어일 때 서로 다른 의미들에 따라 다른 문형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는 의미를 지니는 ‘먹다’는 (나)와 같은 문형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진다는 의미를 지닌 ‘먹다’는 “사과에 벌레가 먹었다.”에서처럼 ‘...에’와 ‘...이/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라)와 같은 문형을 만들어 낸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라)에 모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차기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
- ② 찬수는 내년 학생회장으로 아주 적합하다.
- ③ 나는 그녀를 만난 데에서 매우 긴장했다.
- ④ 영철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잘 이해했다.
- ⑤ 그가 말한 것에 모두가 진심으로 감동했다.

36.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어머니의 방은 매우 어두웠다.
선영이는 이곳 지리에 어두웠다.

㉡ 주은이는 그를 천재로 여긴다.
은희는 영수가 천재라고 여긴다.

㉢ 불을 지폈더니 바닥에는 온기가 돌았다.
그때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 이번 거래에서 명호는 손해를 보았다.
지우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보았다.

㉤ 민수는 페인트를 벽에 칠했다.
광희는 벽을 페인트로 칠했다.

- ① a, b ② a, d ③ b, c
- ④ c, e ⑤ d, e

37. <보기>는 받침 ‘ㅎ’과 관련한 음운 변동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놓은[노은], 쌓아[싸아]

㉡ 앓는[알른], 풀나[끌라]

㉢ 놓는[논는], 좋네[존 : 네]

㉣ 앓아[아나], 많은[마 : 는]

㉤ 놓고[노코], 놓던[노턴], 놓지[노치]

- ① ㉠: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탈락되었다.
- ② ㉡: 음절 말 자음군에서 ‘ㅎ’이 탈락되고, ‘ㄹ’ 뒤에서 ‘ㄴ’이 ‘ㄹ’로 교체되었다.
- ③ ㉢: ‘ㅎ’이 ‘ㄷ’으로 교체된 후, ‘ㄴ’ 앞에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 ④ ㉣: 음절 말 자음군에서 ‘ㅎ’이 탈락되고, ‘ㅇ’이 ‘ㄴ’으로 교체되었다.
- ⑤ ㉤: ‘ㅎ’과 뒤에 오는 ‘ㄱ, ㄷ, ㅈ’이 합쳐져 각각 ‘ㅋ, ㅌ, ㅊ’으로 축약되었다.

38. <보기 1>의 ㉠~㉢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 2>의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맥락에서 언급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대응이라고 한다. 대응에는 ㉡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것도 있고, ㉢ 뒤에 나올 것을 미리 가리키는 것도 있다.

<보기 2>

친구 1: 배가 고프는데 저녁 먹고 다시 연습할까?
친구 2: 그래. ㉠ 그런 말도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친구 1: (전단지를 보며) ㉡ 이거 봐. 식당이 새로 생겼나 봐. 여기서 시켜 먹을까?
친구 2: ㉢ 거기 맛있겠다. 그렇게 하자.

- | | | | |
|---|---|---|---|
| | a | b | c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39.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의 조사 ‘로’, ‘으로’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의 조사에는 ‘로’, ‘으로’, ‘으로’가 있다. 현대 국어나 중세 국어에서 ‘로’가 쓰이는 음운 환경은 모음이나 ‘ㄹ’로 끝난 체언 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비해 현대 국어의 ‘으로’가 쓰일 환경일 때,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으로’나 ‘으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체언과 중세 국어의 조사 ‘로’, ‘으로’, ‘으로’가 결합된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 체언	전츠 (까답)	믈 (물)	썸 (꿈)	나라 (나라)
조사 결합형	전츠로	㉠	㉡	㉢

- | | | | |
|---|-----|-----|------|
| | a | b | c |
| ① | 믈로 | 꾸므로 | 나라호로 |
| ② | 므르로 | 꾸므로 | 나라호로 |
| ③ | 믈로 | 꾸므로 | 나라호로 |
| ④ | 므르로 | 꾸므로 | 나라호로 |
| ⑤ | 믈로 | 꾸므로 | 나라호로 |

(바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⑤	②	②	④	⑤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⑤	⑤	①	⑤	④	⑤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②	②	②	⑤	④	④	③	⑤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⑤	⑤	⑤	②	⑤	②	④	④	①	